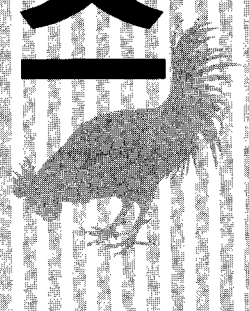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브라질

EU 닭고기 수출 차질

브라질 정부는 최근 수출 닭고기에 대해 무거운 관세를 부과시킨 EU를 상대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브라질은 원래 GATT 협정에 의해 EU에 연간 발골 닭고기 15,500톤을 무관세로 수출하여 왔는데 이 물량을 초과한 양에 대해 톤당 2,70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게 되었다. 이는 닭고기 생산비의 8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그러나 EU측은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 쿼터량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수출업자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어 닭고기 수출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이 EU에 수출한 금년 전반기까지의 발골 닭고기 수출 물량은 8천만불어치이며 이는 브라질 전체 수출량의 40%에 해당하는 양인데 금년 수출 목표는 7억5천만불어치로 밝혀졌다. (PI)

싱가포르

'97 아시아 사료성분 및 곡물가공 박람회 개최

싱가포르에서는 오는 '97년 3월18~20일에 싱가포르 국제박람회장에서 '97 아시아 사료성분 및 곡물가공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열릴 박람회에서는 사료와 곡물 두 분야로 나뉘어 각종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며 사료의 경우 "사료성분의 가치와 이용"을 주제로 동물사료와 어분에 대한 중점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며 18일에는 "아시아에서의 곡물 무역과 시장 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AWTG)

독일

계란 공급 실패

독일의 '95년도 연간 산란계 1수당 평균 산란개수는 '94년 보다 3개가 늘어난 264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란 생산량은 13,367백만개로 112백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란계 숫자가 2%가까이 떨어진 50.7백만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표. 독일의 계란생산량 추이

단위(백만)	1992	1994	1995
생산량	14,150	13,479	13,367
소비량	18,295	17,815	18,298
수입량	5,335	5,705	6,102
수출량	1,048	1,233	1,057
소비량 (개/인)	227	219	224
자가소비율(%)	76.6	74.9	72.4

그러나 1인당 소비량은 224개로 약간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수입량은 연간 5,198백만개를 수입하는데 이중 68%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WP)

잠비아

닭고기 제품 불법유통 적발

잠비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어진 3,000개의 닭고기 가공제품(K22-상품명)에 대해 압수, 소각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루사카 지역에서 수입된 닭고기는 검역소에서 통관절차를 기다리다 적발이 되었는데 이 닭제품은 뉴캐슬이 발생한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남아프리카로 부터의 닭고기 및 닭가공 제품에 대한 수입이 전면금지되기도 하였다. (WP)

일본

1인당 소비량 339개로 1위

국제계란위원회(IEC)가 회원국 28개국중 2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간 1인당 계란소비

량(95년)에서 일본이 원란 190개, 가공란 149개로 339개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鶏鳴新聞)

표. 각국의 1인당 계란소비량(95년)

국명	합계	원란	가공란
일본	339	190	149
슬로바키아	298	278	20
이스라엘	290	-	-
프랑스	267	215	52
덴마크	260	-	-
벨기에	240	-	-
오스트리아	238	220	18
미국	235.4	174.1	61.3
이탈리아	215	136	79
스웨덴	205	167	38
뉴질랜드	202	182	20
스위스	179	116	63
네덜란드	175	122	53
캐나다	172	144	28
영국	169	145	24
아일랜드	165	149	16
호주	152	132	20
중국	144	137	7
그리스	120	120	-
도루코	120	119	1
남아프리카	103	99	4
이집트	48	45	3
파키스탄	38	-	-
인도	35	35	-

※벨기에, 중국, 프랑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는 '92년치, 이탈리아는 '93년치,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도루코는 '94년치(자료) (IEC)

북한

수선화 가축사료 이용

다년생 관상용 화초이며 약재로도 쓰이는 수선화가 북한에서는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 의하면 "수선화는 프로틴, 섬유소, 지방질, 인, 칼슘, 카로틴 등이 들어있어 콩으로 만든 사료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가금류나 기타 가축에게 먹일 경우 증체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하루 사료량의 80%까지도 섞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MJ)